

# 安東 水没地区의 感傷

金 洄

安東에 「多目的」댐이 完工되는 것은 1976年 9月이다. 댐은 73m높이, 542m길이의 土石重力式으로 洪水 調節量 1억4천만 M<sup>3</sup>, 用水供給量 年間 9억2천6백만 M<sup>3</sup>, 생활 및 工業用水 年間 7억4천만 m<sup>3</sup>, 灌溉用水 公給량 年間 1억8천만 M<sup>3</sup>, 發電力 9만kw 의 이른바 다목적 댐이다.

이 댐이 完工되면 安東郡內 여섯개의 面이 (4300戶840平方킬로미터) 물속에 잠기게 된다.

洛東江 流域의 住民들은 年例的인 홍수와 旱害의 악순환 속에 살아왔다.

그리고 UNDP에 의하면 낙동강 本流에 3개, 支流에 15個 댐 건설예정지 중에서 안동댐의 妥當性이 가장 높다.

西紀 1976년에는 물에 잠겨 영원히 못 보게 될 안동마을의 먼지 이는 황량한 길을 걸으며 나는 다분히 感傷的인 생각에 젖어든다.

交通이 不便하기 이룰데 없는 이곳은 可謂 韓國 近代史의 奧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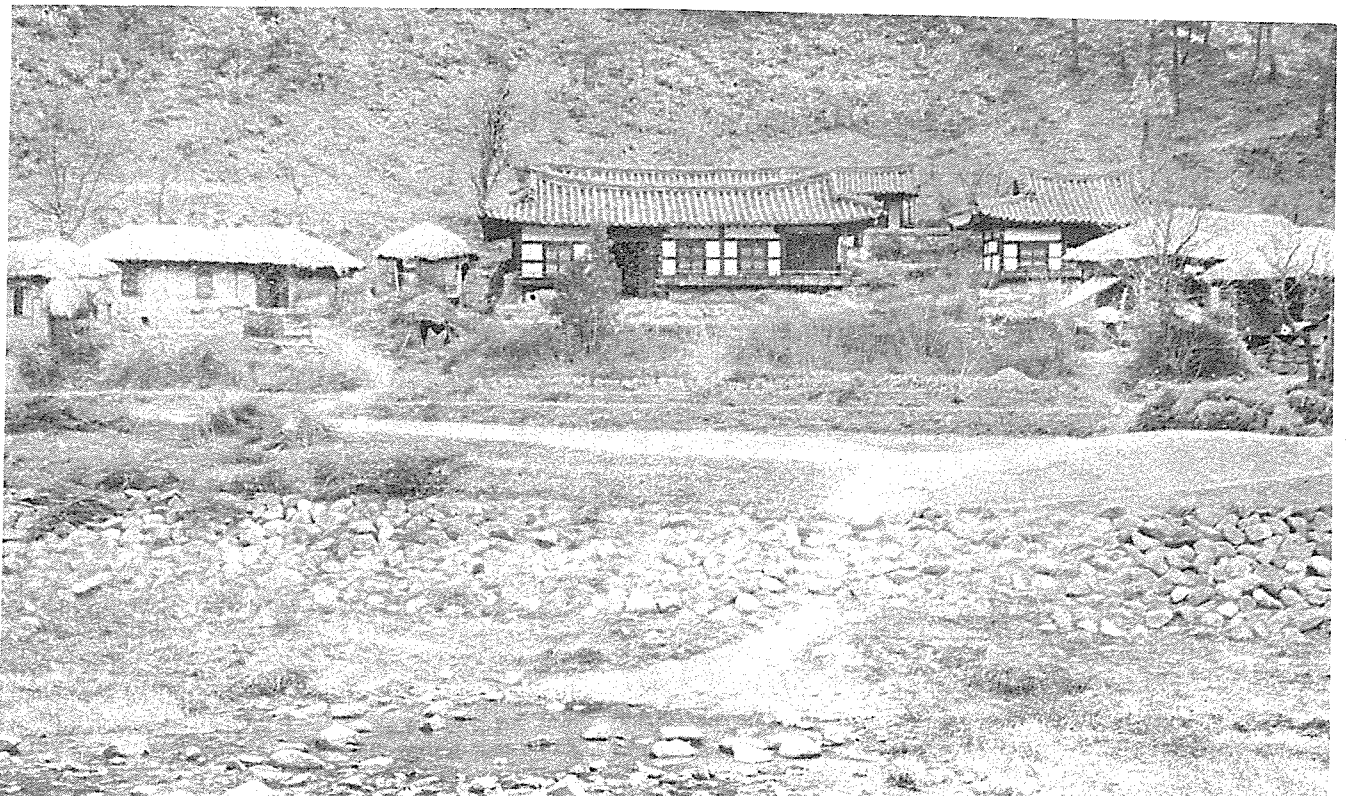
이 경상북도 땅이 全國에서 遺跡保存率 第一位라는 것은 경주와 이 안동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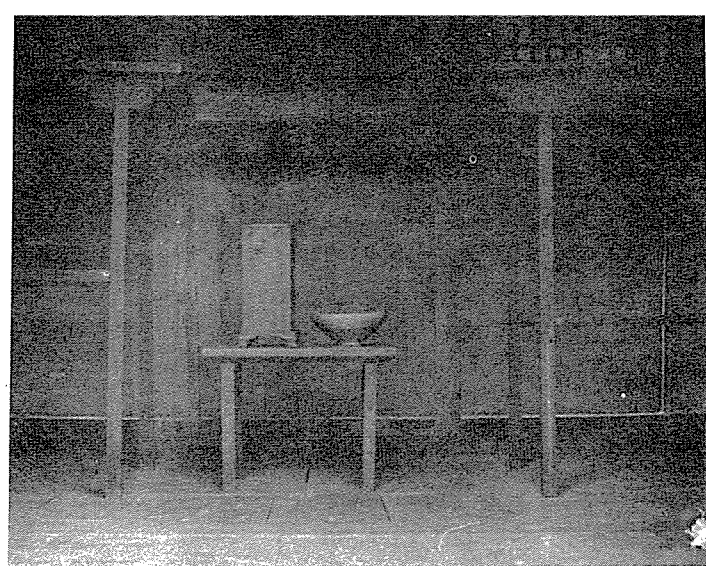
이미 충분한 讚歎을 받아 그 聲價가 人口에 膾炙하는 국보와 보물들이 안동 여러곳에 널려있다. 그 위에 댐 건설로 水没이 확정된 이후에 國立박물관과 各大學 조사반이 발굴해 낸 先史時代의 유적들도 그 考古學의 가치들이 확인 되었다.

그러나 그런것들 보다도 내게 더 마음 끌리게 하는 것은 이곳 土溪, 宜村洞, 禮安 등에 散在한 작은 마을들이다. 그리고 그 마을에 오랫동안 깃들여온 生活과, 그 생활을 가꾸어온 그들 삶에의 姿勢같은것 들이다.

그들 뛰어난 立地의 精神과, 自然을 보는 叡智와, 意圖의 일듯 아닐듯 感覺的인 進入의 테크닉과, 위엄있는 Clustering과, 그리고 또 400년 해묵은 -아니 200년 이래도, 20년이래도 좋을 - 정겨운 생활의 찌들림과,

그 이끼끼 낀 기왓장과 그늘은 부뚜막과..... 그 점잖은 몸짓의 노인네와, 나그네를 향한 그 溫柔한 미소의 아낙과...





옛날의 洛東江은 文化를 만들었고 지금의 이 강은 物質을 만든다. 땀 工事は 그래서 「해야할 일」로 받아 들여진다. 경작지와 공장과 도시에 물을 낸다.

지금은 모든 강이 그렇다. 그리고 現代가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참으로 오랫동안 「物質的으로」 가난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인간, 한 民族으로서의 진정한 의미의 「가난」이었느냐.

우리는 經濟開發計劃이 세워진 이래 「생각하기」를 잊었다. 그것은 한국역사가 있어온 이래 변함없이 전해 내려온 우리 생활의 버릇이었음에도,

그 「생각하는 民族」의 요즘 子孫들은 돈을 벌어서 T.V를 사고 냉장고를 사고 자가용을 사고, 그리고는 그 골치 아픈 생각하기를 그친다. 다음에는 邸宅을 사기 위하여 생각하기를 그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서는 저택은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많이 生産해 내는 것이 많이 創造하는 것이라는 錯覺이 우리들을 휩쓴 것이다. 그들 價值觀은 모든것이 換金性에 歸一하였다.

그것은 얼마이나, 그것을 하면 얼마가 생기느냐.

그래서 그렇지 못한 모든것은 일단 無價值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은 모든것, 사랑하는것, 누구를 믿는것, 그 모든것이 무가치한 것이 되었다.

돈이 있어야 연애도 하고, 돈이 있어야 孝道도 하고, 民族中興은 GNP 頭當 1,000달러인 것으로 알게끔 되었다.

그 좋아하는 所謂 「傳統」 부르짖는 建築家들도 어디서 研究費라도 푸짐히 나오지 않는 限, 이 교통불편한 곳에 가는 일조차 그들 黃金같은 시간을 쪼개지 않는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民族의 悲劇일런지 모른다. 우리가 잘 살수 있다는 것은 國富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곧 国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富裕한 者가 곧 힘이 있다는 사상은 타락이다.

詩를 읊는 者, 그림을 그리는 者에게 주어지던 榮光의 月桂冠은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詩를 지어서

御使도 되고 글을 써서 宰相도 되던 民族적 예지의 시절이 있었다. 그 詩는 생각하는 方法이며, 삶을 보는 눈이며, 그 能力의 表現이며, 그리고 모든 것을 包容하였다.

나는 이곳 물에 잠길 마을에서 그들 마음의 풍부하였음을 가슴깊이 느낀다.

마음의 풍요는, 바로 그것은 여유에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단정해서 말 할수 있을 것 같다. 만일 우리가 다시한번 國難에 處한다면 지금 우리의 價值觀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 家族을 먼저 피난시키고 그 재산을 빼 돌리느라고 모여서 議論할 겨를조차 없을 것이다. 現代版 修身齊家論은 그런 것이다.

그런 삶의 方式은 결코 「잘 사는」것일 수 없다. 그리고 그와같은 財産의 集積은 결코 国力일 수 없다.

우리에게는 精神이 優先해야 한다.

分明하게 定立된 價值觀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 잘 살아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고 生産도 늘려야 한다.

우리에게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은 그 精神의 中興이다.

나는 安東에서, 이 머지않아 人工湖의 밑바닥으로 변해 영원한 沈默의 암흑으로 변할 마을에서, 하잘 것 없는 補償金으로 곧 生計가 막연해 질 이곳 사람들과의 미련스럽도록 여유있는 對話에서, 그 精神의 鎮魂曲을 듣는 것 같아 마음 아프다.

UNDP의 리포트는 나무랄 데 없이 「合理的」이다. 나는 그들 feasibility study에 맞서서 댐 건설공사의波及 効果와 경작지 面積減少를 비교할 생각은 없다. 「댐 건설의 適地가 上流에 위치해야 하는 地形的 條件때문에 18개의 댐이 전부 개발되도 總集水面積은 全流域面積의 31.5%, 流量調節能力은 年間 總流出量의 23.6%에 불과하다. 18개 댐群에 流入하는 洪水量을 100% 조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下流에서의 洪水調節減量은 17% 정도 뿐이다」라는 一部 異見에 대해서도 可타否타 말 할 자격은 나에게 없다.

멤 전체 공사비의 35%라는 文化財 移轉費와 補償金の 比率도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것이긴 하다.

우리는 UNDP 리포트가 이런 마음 아픔의 얼마만큼을 이해하고 있을까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찾아 내거나 보존하지 않는한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종류의 高貴한 것들이다.

堂号를 「愛日堂」이라고 한 一文化財로 指定되어 다른 곳에 옮겨 세워질 한 선비의 亭子가 있다.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 恭敬한다는 뜻이고, 해(日)는 父母를 의미한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 思想의 根幹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정신의 고향이겠다. 그것은 옮겨 세워 지는 것이다.

「所有者の 同意를 얻어 安東郡이 買入하여 民俗村을 건립토록 계획이었으나 민속촌 건립不可로 個別 移轉場所 결정(교통편리한 景觀地) 郡이 이전공사를 실시한다.」

나는 이 땅거미지는 길이, 그리고 이 길가의 느티나무가, 그리고 그 느티나무 아래서 일어났던 모든 이야기가 물속에 잠긴다는 사실을 쉽게 믿을 수가 없다.

얇은 강은 호수가 된지만 이 반들거리는 징검다리 돌들은, 그리고 좁고 구부러진 길들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

安東을 떠나면서 느끼는 나의 이와 같은 憂愁는 테크노크라시의 時代에 있어서 나 혼자만이 별나게 갖는 感傷일 것인가. 한 建築人에게 있어서 말이다.

나는 멤 건설공사의 타당성을 십이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좀 어리숙해 보이는 미련을 버릴 수가 없다. 愛日堂과 그 생각의 淵源들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라면 멤보다는 타당성이 없어보이는 堤防을 江兩岸에 쌓고, 계속해서 높아 간다는 河床을 浚濬하기 위해 다른데서 번 돈들을 이곳에 만이라도 쓸 수는 없다는 것일까.

서울에 돌아온 후 나는 이야기가 통할 사람이면 만나서 사람에게 마다 安東이야기를 꺼냈다.

詩人과 영화감독과 화가와 소설가와 그리고 물론 건축가들과, 그 시인은 시를 쓸 것이다. 서울의 변모와, 사라져 가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읊던 숨씨로 그는 마음 아픈 시를 쓸 것이다.

영화감독은 그가 즉석에서 약속한 대로 도큐멘터리·덧취의 음울한 영화를 만들 것이다. 이 마을에 물이 차 올라오는 광경을, 그리하여 들쥐의 폐가 도망치는 모습을, 지붕만 뚝뚝 떠다니는 草家를, 그리고 언덕에서 그것을 무기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노인네를, 그런 것들을 담은 영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画家는 캔버스 가득히 잿빛 하늘을 그릴 것이다. 400년 이끼끼기기와 지붕을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버린 廢家와 그래도 남아있을 좁은 시골길을 그릴 것이다. 그 물밑에 잠길 길을,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 갔을, 그 물밑 바닥에 하얀 라인으로나 남을 그 길을, 화가건 시인이건 영화감독이건, 적어도 안동에 가 본

사람들,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들은 멤의 완공을 경축하는 프로파간다 영화나 民族記錄画 같은 그림들은 연상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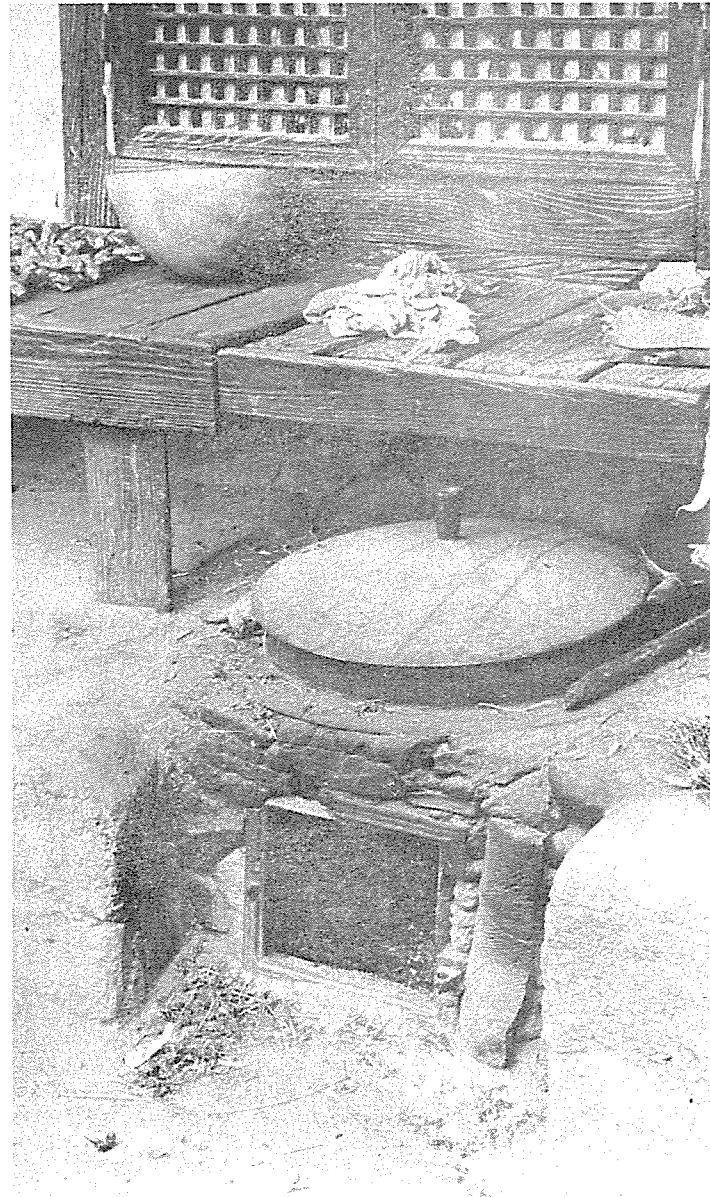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 사라져가는 마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영화를 만들수도, 시를 쓸 수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마을의 印象들을 마음속에 남기는 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高貴한 것으로 간직하는 일 뿐이다.

나는 그 마을의 clustering을, 400년 목은 대문과 사랑채와 안채와의 관계를 사진 찍고 實測하여 도면으로 그릴 수는 있다.

或者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오히려 묻겠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묻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것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막연한채로 무슨 해야 할 일 같은 것일 뿐이다. 그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은 이 경우 다목적 댐보다는 무의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내게는 귀중한 것이다.

참으로 내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安東金氏, 安東權氏, 眞成李氏, 그리고 書院과 儒學의 잘 알려진 어떤 폐습들은 지금처럼 비난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그것은 지나쳤을런지도 모른다.

두번째 안동을 찾은 길에, 李退溪가 살아 있을 때 그 落成式에 초대받았다는 일화를 가진 한 정자 앞을 지나며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勢道政治로 惡名을 높인 金祖純의 몇번째 무엇인가가 된다는 어떤 金氏의 집, 退溪先生은 한 눈에 그 집이 선비의 집으로는 지나치게 화려하다는 이유로 落成祝賀宴 참석을 사양하고 건너편 언덕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지금 우리에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런 정신, 그런「선비」의 마음가짐, 그리고 生活哲學이어야 하고, 우리가 가까워 해야 하는 것은 그들 慧眼으로 골라낸 이 明堂의 고을, 그들 素朴한 生活의 集結인 그 마을들, 그리고 그들「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개 베고 누웠던」 치장하지 않은 정자의 대청 마루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라져 간다. 近代化의 물결에 휩쓸려 그것들은 사라져 간다.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

오래전에 상영된 미국영화「TVA」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나는 마음이 무거워 진다. 1930年代의 經濟恐慌對策으로 연방정부가 벌인 테네씨 溪谷 開發事業과 그 댐 공사장이 이야기의 무대였다. Tennessee Valley Authority의 弘報 担当官인 몽고메리·클리프트는 머지않아 水沒될 테네씨江 가운데의 한 三角洲에서 移住하기를 거부하는 어떤 黑人家族을 설득하려 매일 그 섬에 出張한다. 기억에 특별히 남는 人物들로 憂愁에 잠긴 젊은 담판관보다는 그 黑人家의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조상이 80년 동안 그 섬을 가꾸어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보상도 移住도 거부하며 그것은 國家의 일이고 이 섬은 우리의 땅이며 우리가 여기서 죽건 살건 상관하지 말라고 말한다. 종당에는 젊은이들은 관리에게 충질하기까지를 서슴치 않는다.

土溪마을에서 만난 어떤 15人 大家族의 家長인 한 老人의 이야기와 이것은 너무도 대조적이다.

노인의 첫 마디는「나라에서 하시는 일인데……」뿐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그의 우물거리는 입가에서 흘러 나오기까지는 한참이 걸린다.

그는 150만원을 보상받기로 되어 있다. 아마도 그 돈은 그의 一家가 安東邑內에 열다섯식구를 위한 陋屋을 마련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랄 것이다. 그들 家族은 뿔뿔이 흩

어지기가 심상일 것이다. 어쩌면 그 十代의 孫女는 都市의 공장에 일자리를 구하거나, 그나마 軍隊에서 生活力을 배운 젊은 막내아들은 서울에서 손수레를 끌게 될런지도 모른다.

노인은 이미 家父長的 체통을 잃은 것이다.

「나야 여기서 죽는거지 뭘. 저것들이 안됐지」 그는 마당의 손주 애들을 턱으로 가리킨다.

「그래도 여기서는 뉘집 애들 하면 알아는 주었지.」

노인의 힘없는 눈꺼풀 속에는 몇백년 전에 絶對君主의 橫暴에 抗議하여 全國의 儒林이 들고 일어나 處刑을 각오하고 임금의 뜻에 거슬리는 上疏文을 올리던 그런 종류의 눈빛도, 더구나 더 더구나 관리에게 충질을 하던 美國黑人의 눈빛도 없다.

그러나 어찌 이 노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크게 자리잡은 조상의 무덤과 祠堂에 대한 戀慕이 그들만 못 하겠는가.

어찌 이 한국인의 大地에 대한, 조상을 묻은 흙에 대한 愛着이 미국애들만 못 하겠는가.

우리는 잘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과 그것과를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한번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에는 反對하는 者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近代史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일로 결론지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숙히 뿌리박은 한국인의 精神이 적어도 消滅됨이 없이, 變身된 모습으로, 다른 方式으로 라도 꽃 피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마치 할머니의 葬禮式에서 내 인자했던 할머니의 미소와 그 의미가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울 것 처럼 비는 마음으로, 朴正建築院

(1975年 4月)